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림

7/29 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4:7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히 12:1

1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엎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히 10:35

35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담대함이 큰 보상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고전 3:14-15

14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15 그 일이 불타 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빌 3:13-14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믿는 이들은 ... 달려야 할 길을 달림으로써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체험한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나의 경주이고, 우리는 경주하는 이들이다(히 12:1). ...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9 장 24 절에서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라고 말한다. ... 우리는 반드시 달려야 할 뿐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해, 즉 우리를 격려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 성공적으로 달려야 한다. 고린도전서 9 장은 그리스도인이 달려야 할 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전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달려야 할 길을 달린다. ...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달려야 할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보상 즉 상을 받는 것은 특별한 누림을 얻는 것이다. (진리 공과, 개정판, 4 단계, 3 권, 44 과, 5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하고 있는 경주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요 14:6)라고 말씀하셨다. 경주는 길, 즉 달려야 할 길이다. 그리스도는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주이시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경주이다. ...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시지만, 우리는 이 길을 그저 길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로 취해야 한다. 우리는 여유롭게 이것저것을 고려하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느긋하게 걸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4 장 7 절에서 바울이 “나는 ...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라고 선포한 것처럼 선포할 수 있을 때까지 경주를 해야 한다. 바울은 주님께

사로잡힌 후 하늘에 속한 경주를 시작했고, 그 경주를 마칠 때까지(행 20:24) 쉬지 않고 달렸다(고전 9:24-26, 빌 3:12-14). 이제 마지막에 그는 승리에 찬 방식으로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습니다.” 라고 선포했다. 그는 또한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다(딤후 4:8).

믿는 이들이 경주를 하여 얻을 상은 썩지 않을 월계관인데(고전 9:25), 이 월계관은 격려하기 위한 보상이다. 주님은 돌아오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보상을 주실 것이다(마 16:27, 계 22:12, 고전 4:5).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될 것이며(고후 5:10), 우리는 오는 왕국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마 25:21, 23). 이 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엡 2:8, 고전 3:15)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보상(히 10:35, 고전 3:14)이다. 영원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엡 2:8-9), 보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에 행한 일에 대한 것이다(고전 3:8, 14).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보상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는 어떻게 경주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

고린도전서 9 장에서 바울은 경주를 하고 있었다. 후기 서신서들 중 하나인 빌립보서에서도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3:14). 디모데후서 4 장 6 절부터 8 절까지에 있는 경주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비로소 사도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에게서 보상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러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도록 달려라고 우리를 격려한다.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불필요한 무거운 것과 방해되는 짐을 벗어 버려야 한다. ...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를 쉽게 얹어매는 죄'를 떨쳐 버려야 한다(히 12:1). 여기에서 죄는 주로 경주를 하지 못하게 우리를 얹어 매고 방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얹어매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죄는 내적인 것인데, 두 가지 모두 우리가 경주할 때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들이다. 그리스도인의 경주에는 많은 반대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주를 하려면 우리는 인내로 반대를 감내해야 하고, 결코 혼이 지치거나 약해져서는 안 된다(히 12:1, 3).(진리 공과, 개정판, 4 단계, 3 권, 44 과, 56-5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개정판, 4 단계, 3 권, 44 과

7/30 화요일

아침의 누림

히 12:2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시 27:4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히 12:3
3 자기를 거스르는 죄인들의 그러한 거역을 견디신 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혼은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롬 3:22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갈 2:16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롬 10:17
17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 1:4
4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히브리서 12 장 2 절에서 '주목합니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다른 모든 목표에서 돌이켜 주의를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을 가리킨다. 백 미터 달리기 같은 그러한 경주를 하는 이들은 다른 모든 것에서 돌이켜 주의를 집중하여 목표를 주목한다. 이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히브리 형제님들, 거기에 서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에서 돌이켜 주의를 집중하여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의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옛 종교인 유대교와 그 박해에서, 또한 땅에 속한 모든 것에서 돌이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했다.(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0, 59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구약의 성도들은 단지 믿음의 증인들이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 '창시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기원자', '개시자', '인도자', '개척자', '선구자'로도 번역될 수 있다. ... 우리가 이 모든 칭호들을 함께 둔다면,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정의를 얻을 것이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에 따르면, 우리는 믿는 능력이 없으므로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믿음을 갖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보배로운 믿음(벧후 1:1)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음의 요소를 옮겨 부으신다.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존재 안에 믿음이 일어나며,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믿음의 요소로 분배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으시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인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갈 2:20).

예수님은 주로 이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과 노정에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기원자이시다. ... 그분께서 하신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었고, 그분께서 걸으신 노정은 믿음의 노정이었다. 그분의 생활과 노정에서 그분은 믿음의 기원이었다. 따라서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다.

7/31 수요일

아침의 누림

개척자이시며 선구자이신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여셨다. ... 그분의 생활은 여는 생활, 곧 믿음의 길을 여는 생활이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분을 가로 막는 산과 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여셨다. 이러한 조망을 갖고 복음서를 읽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기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믿음의 길을 열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마치 고속 도로 건설자와 같이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들을 제거하셨다. 그분께서 믿음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믿음의 노정의 개척자이시요 선주자이시다.

믿음의 개척자와 선주자이신 예수님은 또한 믿음의 인도자이시며 대장이다. 그분은 믿음의 길을 여셨으며, 선주자로서 그 길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셨다. 따라서 대장이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어, 그분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노정을 끝까지 가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과 노정에서 믿음의 기원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또한 영광 안에 계시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자신이 직접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옮겨 부으시고 주입하신다.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 에베소서 2 장 8 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이 신성한 선물을 받는 이들이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안으로 무언가를 넣으셨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9, 585-58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바울의 배경이 히브리 믿는 이들의 배경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그는 경주를 하는 분이 될 자격이 있었다. 갈라디아서 2 장 2 절과 고린도전서 9 장 26 절과 27 절은 바울이 어떻게 경주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 준다. 빌립보서 3 장 5 절부터 8 절까지와 12 절부터 14 절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여전히 그 경주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 장 7 절과 8 절에서 자신이 경주를 마쳤다고 말했다.

바울은 경주를 하면서 “오히려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전파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고전 9:27)라고 말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할 수 없지만, 시험에 견디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경주에서 실패하는 것이며 목표에 도달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버림받은, 즉 자격이 없거나 인정 받지 못한’을 의미한다. ... 이러한 사상은 목표에 이르는 것과 보상으로 상을 얻는 것과 잘 조화된다. 그러나 여전히 경주하는 이가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보상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히브리서 12 장에서 바울은 히브리 형제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으며, 또한 경주를 하도록 그들에게 크게 동기 부여를 하며 격려하고 있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길을 걸어야 할 뿐 아니라 경주를 해야 한다.(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0, 601-60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고전 9:24-26

24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

25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자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26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권투하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고전 9:27

27 오히려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전파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벧전 1:4

4 곧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유업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벧전 5:4

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계 2:10

10 너는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계 3:11

11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히 12:2)라고 말했다. ...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주로,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으로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며(롬 8:10, 딤후 4:22)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바울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아주 많은 방면을 지니시고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특별히 제시한다. ... 이 책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종교, 땅에 속한 모든 것과 대조되신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땅에 있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그분을 주목해야 한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이제 그분은 승천 안에서 하늘에 앉아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히 1:5)과 사람의 아들(2:6)의 인격, 곧 하나님(1:8)과 사람(2:6)의 인격을 지니시고 하늘에 앉아 계신다. 즉 그분은 모든 것을 상속받으실 분(1:2),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으신 분(9 절), 우리 구원의 창시자(2:10), 거룩하게 하시는 분(11 절),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16 절), 때맞추어 도움을 주시는 분(4:16), 하나님에게서 오신 사도(3:1), 대제사장(2:17, 4:14, 7:26), 더 뛰어난 사역을 가지신(8:6) 참장막의 사역자(2 절), 더 좋은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7:22, 8:6, 12:24), 새 언약의 집행자(9:16-17), 선구자(6:20),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12:2), 양들의 큰 목자이신 분(13:20)으로서 하늘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고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늘과 생명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에게 옮겨 부으시고 주입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가 일생의 모든 노정을 통과하도록 하시며,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다(2:10).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히 2:9) 이 놀라우신 예수님은 우주 안에서 가장 매혹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거대한 자석과 같으셔서 그분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그분께로 끌어당기신다. 우리가 그분 아닌 다른 모든 것에서 돌이켜 그분을 주목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사로잡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혹시키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겠는가?(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0,599-60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5-46, 49-50

8/1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13,18

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후 5:7

7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엡 2:8

8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롬 8:24

24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히 11:1, 27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27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봄으로써 흔들림 없이 견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속한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교회가 하락한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보이는 것들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 우리가 우리의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롬 8:4) 살아 계신 하나님을 주의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로 회복된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영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보이는 것들을 주시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다. ...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시한다는 것이다. 교회생활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후 5:7).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받았음(엡 2:8)을 알고 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출생과 신성한 생명을 체험한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타고난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다. 이렇게 생명이 분배된 결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되었다. 신성한 출생도 신성한 생명도 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는 서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실질화하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실질화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성한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히 11:1). (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년, 3권, 히브리서에 있는 중요한 요점들에 대한 기록, 8장, 127-12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믿음의 요소로 옮겨 부으신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 실질화하는 능력인 믿음은 육감과 같다. 우리는 이 실질화하는 감각을 복음 전파를 통하여 얻었다.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만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분명 옮겨 붓는 문제이다. 내가 어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해 보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전에 나는 먼저 주님께 속하고 주님에게서 흘러나온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주님에게서 받은 것이 마치 전기처럼 듣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 비록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내가 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깊은 속에서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서 무언가 계속 반응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너무 좋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의 존재 안으로 어떤 요소가 옮겨 부어졌으므로 이제 그들은 주님을 믿을 수 있다. 자신이 주 예수님을 이미 믿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집회에서는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 많은 고집스러운 이들에 대해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평안이 없었다. 왜냐하면 안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휘젓고 성가시게 했기 때문이다. 다음 복음 집회가 돌아오자, 그들은 “거기에 다시 한번 가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옮겨 부으신 결과이다.

모든 복음 전파자들은 매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 그가 말하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듣는 이들은 마치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매혹 당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매우 많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수록 복음 집회는 더욱더 매혹적일 것이다. 복음 전파자는 하늘에 속한 매력을 소유할 때까지 그리고 신성한 요소로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 어떤 복음 전파자는 유창함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매우 매혹적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그의 말을 들을 때 매혹된다. 이것은 어떤 요소가 그 매혹적인 전파자를 통하여 그들 안으로 주입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 무엇도 그들에게서 그 요소를 빼내 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입된 요소가 바로 믿음이다.

이 원칙은 복음 전파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역에도 적용된다. ... 만일 여러분의 사역이 올바르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공급할 때마다 매혹당한 사람일 뿐 아니라 매혹적인 사람일 것이다. 합당한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주입받는 문제이다. 먼저 우리는 신성한 요소로 충전된다. 그런 다음 말씀을 공급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 안으로 신성한 요소를 매혹적으로 뽑어낸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이다.(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9, 588-58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3 장

8/2 금요일

아침의 누림

벤전 1:8

8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뵈는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마 25:23

23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빌 3:12-14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완성자'(히 12:2)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성취하시는 분' 또는 '완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번역될 수 있다. ...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는 데 필요한 믿음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며, 자신이 창시하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9, 586-58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분명히 죄인들은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나면서부터 우리에게서 어떤 믿음도 없다. 오직 불신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합당한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 충전된다. ... 이렇게 하나님 자신께서 그들 안으로 옮겨 부어지심으로 그들은 이제 자신에게 믿음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것이 믿음의 선물이며, 이 믿음의 본성과 요소는 하나님 자신이다.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 ... 그러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발산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 자신으로 충전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된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다. 믿음은

매우 주관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믿으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옮겨 부으시고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신다. 다름 아닌 그분의 인격이 우리 존재 안에서 믿음의 요소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 따라서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으시는 그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를 믿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믿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일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시작하시면, 그분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신다. 반대로 그분은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며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서 조금의 믿음도 없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오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믿으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인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갈 2:20).

그리스도의 믿음의 요소는 생명의 법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안으로 충전된다. 우리가 생명의 법이 우리의 존재 안에서 작용하도록 더 많이 허락할수록, 더 많이 믿을 수 있게 된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법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계속 작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 법의 작용은 우리 안에서 큰 믿음을 산출할 것이다.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표현과 증거를 산출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동안, 이러한 작용의 첫 번째 산물은 우리가 믿는 것이다. 가장 많이 믿는 사람은 안에서 생명의 법이 가장 많이 작용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필사적인 노력이나 분투 없이 하나님을 극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의

믿음은 그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가 믿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된다.

히브리서 8 장에서 말하는 생명의 법은 히브리서 11 장에서 말하는 믿는 능력 곧 믿음을 산출한다. 성경만을 읽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체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 생명의 법에 따르면, 히브리서 11 장은 히브리서 8 장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믿는 능력은 신성한 생명의 법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반사와 표현과 증거 그 자체가 될 때, 우리는 믿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 사실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은 믿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졌기 때문이다. ...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그분을 주목할 때 우리는 그분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실 기회와 자유를 드린다. 이렇게 하여 생명의 법은 우리가 그분으로 완전히 적셔질 때까지 우리 존재의 모든 속부분 안에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더 많이 그분으로 적셔질수록 믿는 것은 더욱더 쉬워진다. 이것이 믿음을 얻는 길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이처럼 주관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체험하기 바란다.(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9, 589-59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성경의 중점 진리, 5권, 48 장

8/3 토요일

아침의 누림

히 12:3

3 자기를 거스르는 죄인들의 그러한 거역을 견디신 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혼은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행 20:24

24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민 32:6

6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형제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은 여기 머무르겠다는 것입니까?”

미 7:8

8 나를 두고 기뻐하지 마라, 내 원수야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나며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빛이 되시리라.

막 6:45-51

45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 벳새다로 먼저 가게 하셨으며,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46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47 저녁이 되었을 때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그분은 홀로 육지에 계셨다.

48 바람이 거슬러 불어 제자들이 노 젓느라고 괴로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밤 네 번째 파수 시간쯤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로 오시어 그들 옆을 지나가시려 하셨다.

49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는데,
50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며 “안심하십시오. 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시고,
51 그들에게로 가시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매우 놀랐는데,

마가복음 6 장 45 절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 벳새다로 먼저 가게 하셨으며,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라고 말한다. ... 이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 주신 여정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마가복음 6 장 45 절의 ‘재촉하시어’는 고린도후서 5 장 14 절의 ‘강권합니다’와 동일한 단어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강권하시어 배에 태우셨다. ...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정해 주신 여정을 찾아내어 신실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다. ... 어떤 사람은 그 여정을 발견했음에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생활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죽음과 어둠과 제한이 가득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과 논쟁이 일어난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10 권, 부흥보(3), 24 기, 1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잠잠히 많은 인내심을 갖고 충분한 기도 안에서 자신을 헌신하며 복종하는 태도를 지니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 순종해야 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여정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그 길을 가야 한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막 6:47). 우리는 아직 우리 여정의 종착지에 이르지 못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신실함으로 충만한 역사로 기록될지 아니면 중도에 그만둔 실패한 역사로 기록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는 아직 바다 한가운데 있고 항구에 다다르지 않았다. ... 우리는 지나치게 자신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결말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선불리 판단해서도 안된다. 물론, 우리는 올바른 노선에 있는 것에 기뻐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경주하고 끝마칠 것인가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마가복음 6 장 48 절에서 특별한 점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로 오시어 그들 옆을 지나가시려 하셨다’는 것이다. ...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시려던 의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날 하고 계시는 일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벳새다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벳새다를 향해 나아가신 것이다. 주님께서 다른 곳에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겠는가? 주님은 그분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을 찾고 계셨던 것이다. 만일 제자들이 다른 길로 방향을 돌렸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을 만날 수 없으셨을 것이다. 제자들이 엉뚱한 길로 갔다면, 그들을 기다리시기 위해 주님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말씀이다. 만일 주님께서 내게 상하이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난징에 있다면,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 나는 휴거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휴거는 오직 주님께서 정하신 길에서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길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휴거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각자는 어떤 길을 갈지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재촉하시어 건너편 벧새다로 가게 하셨다. 지금 이 순간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장래에 결코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외로운 여정을 선택했다. ...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은 여기 머무르겠다는 것입니까?”(민 32:6)라고 말했다. ... 다른 사람들은 신실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가? 분명히 역경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우리 각 사람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하며, 건너편에 도달할 때까지 그분께서 정해 주신 여정을 가야한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10 권, 부흥보(3), 24 기, 17-19, 23-24, 2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10 권, 부흥보(3), 24 기, 마지막 단계의 길

8/4 주일

아침의 누림

요 20:19-29

19 그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이 있던 곳의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20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시니,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23 여러분이 누구의 죄들을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24 그러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였으나, 도마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습니다.”

26 팔 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27 그러시고 나서 도마에게 “그대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 보고, 그대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시니,

28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자,

2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찬송: 1206 (英) 달려야 할 길 있다 할렐루야

1 달려야 할 길 있다 할렐루야 경주해야 할 길이 있다
시작한 이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셨네
(후렴)

주목하라 주목해 예수만을 주목해
모든 것에서 눈을 돌이켜서 예수만을
주목할지라.

2 주변에서 눈 돌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을
주목해
다투던 것 떠나서 할렐루야 화평이신 주만
주목해

3 혼의 번덕 떠나서 할렐루야 오직 이 목표만
주목해
실패하는 나 떠나 할렐루야 주님 자신만을
주목해

4 모든 과거 떠나서 할렐루야 사신 주님만을
주목해
선과 악을 떠나서 할렐루야 주를 굳게
붙잡을지라

5 시작한 것 끝내는 할렐루야 주의 얼굴만을
주목해
주의 얼굴만 보며 할렐루야 은혜로 이 경주
마치자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9:1-5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 42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Hope, Diligence, and Assurance until the End

Scripture: Heb. 3:6, 14; 6:11, 15; 10:36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 34

Supplemental Reading: *The Way for a Christian to Mature in Life*, chs. 16, 19, 21